관음원력 발원한 '백의의 보살'

◇부산불자간호사회는 17일 부산 당리동 관음사 원통보전에서 창립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부산불자간호사회 전국최초 창립

대학병원 · 양호교사등 40여명 결성
노인 진료봉사 · 간병인교육등 활동

"자비의 천수로 지혜의 천안으로 모든 이들의 고통을 치유해 주시는 관세음보살님의 원력을 배워가는 불자간호사회가 되겠습니다."

부산불자간호사회(회장 황보선, 前 부산대 간호학과 교수)의 간절한 발원. 그 발원의 실천과 구체화를 위해 17일 관음사 원통보전에서 부산불자간호사회가 창립됐다. 기독간호사회, 가톨릭간호사회에 비하면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창립은 전국에서 처음 결성된 불자간호사회라는 큰 의미를 가진다.

단체나 조직에 소속되길 꺼리는 소극성과 3교대 근무를 해야 하는 직업상의 특성이 간호사회 결성에 걸림돌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불자간호사들이 각 병원별로 법우회를 조직, 신심을 북돋우고 봉사활동을 펼쳐오던 중 브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필요성을 느껴 창립에 뜻을 모으게 되었다. 3교대의 직장일과 가정일,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분야 공부 등으로 틈을 내기가 어려운 간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말처럼 간단치 않았다. 그래서 부산불자간호사회는 창립에 앞서 6월부터 매월 셋째주 토요일마다 지현스님을 법사로 관음사에서 준비 모임격인 법회를 열기 시작했다. 5개월의 시간이 흐르면서 지현스님의 법문은 회원들의 신심과 창립의지를 더욱 굳게 했고 각 병원별로 회원들이 하나 둘 가입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모인 회원이 40여명. 부산대학병원, 동아대학병원, 동의의료원, 대동병원, 세강병원, 양호교사, 복지관 간호사 등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그 자비를 환자에게 되돌리고자 하는 이들이 속속 뜻을 모아왔다. 어렵사리 내딛는 첫걸음이지만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로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 주겠다는 마음 하나로 그 신심은 크고도 당당했다.

앞으로 부산불자간호사회는 차근차근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회원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작지만 실질적인 봉사를 통해 비회원 간호사들에게 불자간호사회를 홍보하고 회원으로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

그 첫 활동으로 불자들을 대상으로 관음사에서 1년에 두세차례 실시해오던 간병인교육을 전담, 26일부터 29일까지 교육을 한다. 또한 11월 1일 관음사에서 지역 노인들을 위한 의료봉사를 펼칠 예정이다.

황보선 초대회장은 "법우들과의 교류를 통해 신심을 두텁게 하고 간호와 관계되는 봉사활동을 강화해 어려운 이웃을 따뜻한 자비의 손길로 보살필 것"이라며 "앞으로 전국적인 조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고려대장경 해제' 출판법회

고려대장경 해설서 〈고려대장경 해제〉 출판기념법회가 21일 길상사에서 고려대장경연구소 주최로 열렸다.

이날 법회에는 지관(가산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 월주(조계종 총무원장) 청학(길상사 주지) 일수(백양사 운문선원장) 스님과 이태녕(서울대 명예교수) 이어령(이화여대 석좌교수) 한용외(삼성문화재단 사장) 윤청하(문화관광부 종무관) 김광삼(현대불교 사장)씨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했다.

송광사 효봉선사 32주기 추모재

순천 송광사(주지 현지)는 21일 효봉영각 앞에서 효봉대선사 제32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이날 추모재에는 보성(송광사 방장) 현호(송광사 부방장) 법흥(송광사 동당)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송광사는 추모재에 이어 민족문화교육원(수련원) 기공식, 해청당 상량식, 효공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을 각각 실시했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송파구민 위한 청화스님 초청법회

11월13일 구청 강당

구민을 위한 큰스님 초청법회가 열린다. 송파구청 불자회(회장 유중원, 지역경제과장)는 11월 13일 오후4시 구청대강당에서 청화스님(곡성 태안사 조실 · 사진)을 초청하여 구민을 위한 기원법회를 개최한다.

이번 법회에는 관내 25개사찰 주지스님과 불자 5백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유중원회장은 "지역불자 화합과 신행증진을 위해 큰스님 초청법회를 준비했다"며 "불교발전을 위해 올해내로 송파구사암연합회를 결성토록하는데 매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우리 모임에선

대전운불회 창립 9돌

대전운전기사불자회는 21일 중앙불교회관 법당에서 5백여 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 9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법장스님(수덕사 주지)은 법문을 통해 "9년 동안 달리는 포교사로 불법홍포에 앞장섰다"며 "더욱 정진하여 운불련이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동불라이온스 월례회의

동불라이온스클럽(회장 윤천수, 정일감정평가법인 대표)는 11월5일 6시 서울 타워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지역 1.2지대 합동월례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윤천수회장 취임식도 함께 열린다.

금융결제원 정기법회

금융결제원 불교회(회장 조화제)는 28일 14층 회의실에서 정기법회및 불교공부모임을 갖는다. 이날 불교공부시간에는 고민수회원이 〈천수경〉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수덕사, 장기기증자 천도재 봉행

조계종 제7교구 본사 수덕사(주지 법장스님)는 18일 대웅전에서 '제4회 장기기증자를 위한 천도재'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생명나눔실천회 이사장 법장, 능호스님(부천 선재마을), 이원기 생명나눔실천후원회 부회장, 조문호 생명나눔회 충남지부장을 비롯 故 임창빈 시신기증인의 부인 차회자보살 등 유족 80명이 참석했다. 법장스님은 법문에서 "자신의 육신을 꺼져가는 생명들에게 바친 장기 및 시신기증자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겨 생명나눔의 보살행에 나서자"고 당부했다.

'성원살리기' 기원법회 열린다

2일 부산 국제문화센터

성원 화의청원 서명운동본부(본부장 혜총스님)는 11월 2일 오후 2시 부산 국제문화센터 4층 대강당에서 '성원' 정상화를 위한 기원법회를 개최한다.

이날 성원정상화기원법회에서는 혜인스님(제주약천사 주지)이 '보살행에 대하여'를 주제로 법문할 예정이다.

본부장 혜총스님은 "성원살리기운동을 범지역적으로 넓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이번 법회를 마련했다"며 "성원화의 신청이 정부등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어 조만간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운동본부는 성원이 복지활동에 관심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한 종교에 국한하여 지원한 바도 없고 특히나 공사장 식당을 불교계에 일임하여 특혜를 주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성원화의청원 서명운동본부 (051)816-3680

원심회 창립 10주년 법회

조계사 원심회(회장 덕신스님)는 18일 오후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창립 1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원심회는 이날 〈불교수화 용어집〉을 3천권 발간, 배포했으며 〈법화경〉 점자 · 녹음도서 각 1백질을 시각장애인들에게 증정했다.

청량사 10년불사 회향

경북 봉화 청량사(주지 지현)는 17일, 18일 양일간 10년불사를 회향하는 1만지혜등 점등 및 범종루 낙성 · 범종타성 대법회를 개최했다.

청량사는 2천년까지 문수전 일주문 요사채도 건립할 예정이다.

"나라를 구하는 교단을 만들겠습니다."

- 소납 설조의 종단운영 기본종책은 이렇습니다 -

'94년 종단 개혁불사'라는 다시 있어서는 안될 엄청난 진통과 희생에 무임승차하면서 4년 전 출범한 송월주 총무원 집행부는 두루 아시다시피 개혁의 지속적 추진과 완성이라는 종도들의 간절한 염원을 송두리째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과거 집행부보다 거의 6~7배나 늘어난 예산을 가지고 지난 4년 동안 송월주 집행부가 이루어 놓은 실적이란 고작 늘어난 서류철과 빈번한 신문광고, 시도때도 없는 TV출연과 너무나 잦은 탓에 식상할 정도가 된 신문동정란 등장 정도가 전부라고 할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총무원장 선거용으로 최근에 제작, 배포하고 있는 송월주 원장에 대한 선전물 '내일을 위한 기획안'은 그 내용이 1인 선전용 광고물에 지나지 않을 정도여서 보는 이로 하여금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소납 설조는 이같은 한심한 종단상황을 마냥 손놓고 바라볼 수만은 없어서 오랜 고민 끝에 종단을 바로 세우는 대임의 수행을 자청하고 몇 가지 종책을 구상하였습니다.

소납이 구상한 종책이 여러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없지 않겠지만, 미흡한 부분은 제현의 일깨움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또 종책 실천에 대한 굳은 의지와 굴하지 않는 원력으로 교단의 기틀을 다지고 반듯하게 하는데 감히 토대가 되고자합니다.

1.총무(관리)분야

유기적인 조직체에는 반드시 일정한 통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은 불행하게도 중앙중심의 통제 기능이 사실상 상실되어 있습니다. 중앙중심의 통제뿐 아니라 교구중심의 통제기능도 여법하지 않아 규모에 비하여 덩치에 비하여 역할을 못하는 기형적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로는 불교의 본래 기능이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능도 역사가 일천한 외래종교는 차지하고 신생교단에조차 미치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화 이후의 누적된 행정승들의 실책과 산중 및 문중간의 벽이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중앙통제기능 확립은 논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임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통제기능 강화를 포기하여서는 다양하고 급변하는 사회에서 '퇴화'라는 미끄럼틀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납은 교구 본사 중심으로 통제와 보완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교단내 인사와 재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교단의 인사와 재정이 통제되도록 하겠습니다.

2. 교육(도제양성)분야

오늘의 교단 현실은 기성 승려와 신도들의 불교적 역량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결코 오늘의 현실을 놓고 남의 탓이나 다른 이유를 내세워서는 안될 것입니다. 혹자들은 조선 오백년간의 불교탄압과 일제 36년간의 식민지 종교정책, 해방 후 기독교를 앞세운 서양 강대국의 영향탓이라고 돌리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들이 전혀 틀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핍박받던 조선왕조 시대에서도 보우, 서산, 사명, 소요, 편양 등 이루 열거하기 어려울만큼의 많은 선지식들이 출현하였으며 일제강점 시대에도 경허, 만공, 용성, 한암, 한영, 만해 등 수많은 대덕들이 출현 불조혜명의 불을 밝혀 오늘에 이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단이 처한 현상은 기성세대가 불교적 소양뿐 아니라 사회적 안목을 갖추지 못하고 사문의 길은 저버린 채 인간의 지성마저 외면 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 승단은 뼈를 깎는 반성으로 우리의 후배들만큼은 우리세대의 어리석음을 답습하지 않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후배들의 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히 함으로써 인천의 스승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데 촌음을 아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오늘날 중앙승가대학과 종립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의 교육은 최선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방 승가대학(강원)의 학제나 교육현실에는 개선할 점이 없는가?' 등을 점검하여 부족한 점은 보충하고 개선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납이 종단의 대임을 맞게 된다면 도심에 위치한 교육기관은 수행처로서의 분위기를 갖추도록 하고, 산중의 전통교육기관은 기본적으로 학과의 양을 늘려 수행인으로서 일반적인 수준의 학덕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선원은 선지적 중심으로 수행정진이 이루어지고 복지에도 불만이 없도록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듭하여 우리 교단에서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정통선맥이 발양되어 인류구원의 본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포교분야

근 2천여년간 이 땅에서 우리 민족의 의지가 되어왔으며, 말 그대로 전통 종교이자 민족종교로 역할을 해왔었던 불교의 오늘날 위상은 어떻습니까? 외세를 업고 들어온지 1~2백년에 지나지 않는 서양종교의 당당한 실상과 위축될대로 위축된 우리 교단을 대비해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히고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 교단을 이렇게 만들었으며 또 무슨 이유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는 것인지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포교가 활발하지 못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포교는 교단을 존재하게 하는 기본적 방편일 뿐아니라 교단을 발전 시키는 제일 덕목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포교를 등한히 해오거나 형식적으로 취급해왔으니 오늘날 우리 교단이 가진 사회적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당연한 자업자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단은 가장 우선해서 포교의 활성화에 힘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포교사를 양성할 수도, 또 대량 수입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각 사찰의 주지스님과 대중스님들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여 수행과 가람수호는 물론 훌륭한 포교사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선결책이라 할 것입니다.

4. 역경분야

역경은 우리 교단의 3대 사업 중 가장 낙후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경은 도제양성 즉 교육과 포교를 위한 기초적인 분야인만큼 이 분야를 소홀히 하고서는 나머지 2대 사업이 제대로 성취될 수 없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역경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등 성과가 없지 않지만 아직도 활성화는 요원한 실정이라는게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역경사의 양성이나 역경된 경전의 보급은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소납은 종단의 대임을 책임지게 될 경우 역경의 주체인 역경사의 양성을 역경원과 동국대에 위탁하고, 역경된 경전을 교단의 전 사찰이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조치함으로써 보급을 확대하고 경전을 기성승려의 재교육 교재나 포교용 기초자료로 사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포교와 역경의 활성화를 동시에 기하는 일거양득의 성과를 얻도록 강력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불교출판의 기본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려대장경의 한글번역 사업이 활성화되면 여타 번역 사업은 물론 침체된 교계의 출판 사업도 활기를 띨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종책은 한글세대에 대한 포교는 물론이요, 계층별, 연령별로 대장경을 의역하는 계기가 되어 포교 및 신도교육의 일대전기가 될것입니다.

실제로 소납이 불국사의 주지로 재임할 당시 불국사 본말사 전체가 한글 고려대장경을 비치토록 조처한 경험이 있고, 이를 통해서 역경원의 역경사업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선 각 분야별로 긴급한 종책만을 제시하였습니다. 더 구체화되고 보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계의 전문가나 관계분야 종사자들의 고견을 청취해 보다 완벽한 종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교단이 침체의 늪을 벗어나도록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불교를 '민족의 종교'이며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종교'로 이끌 것입니다.

소납 설조, 교계 원로 큰스님과 중진대덕 스님들의 성원과 질정을 간절히 기대하는 바입니다.

불기 2542년 10월 일

총무원장 후보 설 조 합장